

지역 소식통

부안마실축제 '이웃기웃 마을투어' 참가자 모집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인 '이웃기웃 마을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웃기웃 마을투어는 부안군 관내 3개 읍면(동진면, 행안면, 보안면)에 위치한 농가에서 직접 특산물들을 수확 또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감자 수확 체험, 딸기 수확 체험, 오디청 담그기 체험이 각각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가족 및 개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폼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폼 링크는 부안군청 또는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buanmasil.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 선정자는 4월 19일(금) 개별 발표 예정이다. 참가 신청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부안마실축제 사무국(063-584-9953)으로 문의하거나,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www.buanmasil.com)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원천 수질 보호 기간제 근로자 선발·운영

정읍시가 상수도 원수의 통로인 도원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 다양한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도원천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으로 선발해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수질오염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수질오염 사전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선발된 2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12월까지 산외면 운암취수구에서 철보면 시산리 취수구로 이어지는 도원천(L=13.6km)구간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불법 낚시 등 어로행위 △축산농가 방문 오염원 적정처리 등 유입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감시·계도 활동과 수변 정화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통·현장행정 군정발전 견인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 취임 100일... "더 좋은 고창 디딤돌 역할에 더 힘쓸 것"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제30대 부군수로 취임한 김철태 부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철태 부군수는 지난 1월 고창군 부군수로 취임한 후 발 빠른 현안 파악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연일 소통·현장행정을 펼치며 '주민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 실현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철태 부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전



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창군 특례 제안, 국가예산사업 발굴, 주요축제 준비상황 점검 등에 나서며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지, 상하·해리·심원 해양개항사업지를 찾아 사업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이외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청 등을 직접 찾아가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탤다. 특히 김철태 부군수는 전북도 예산과장, 생활체육대추전 추진단장, 기획

조정실 성과평가팀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통한 업무추진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군정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태 부군수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내날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고창군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군민을 위한 행정, 윤택을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양질의 일자리 발굴 주력

산업·농공단지 전수조사 마쳐

정읍시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체 286개소를 대상으로 구인업체 전수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와 시 취업중개센터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기업체의 구인 여부와 구인 조건 등을 파악해 기

업이 원하는 인재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사 결과 69개 기업에서 189명 채용을 희망했다. 제2산업단지-신용농공단지-북면단지-기타 순으로 높은 구인률을 보였고, 직종에서는 생산·현장직이 123명으로 전체 구인인원 중 65% 가량을 차지했다. 급여는 2,500~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업이 6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읍·면에 농업용 드론 17대 지원

고창군이 올해 읍·면에 17대의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5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단위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14대,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3



고창군이 올해 읍·면에 17대의 농업용 드론을 지원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기술 시범사업 등 3대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상하면에서 마을드론 방제 확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신 드론기체 설명회와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농업용 드론은 대규모 벼 농사와 밭작물, 사료작물 등 비료와 제초제 살포에 사용된다. 고도와 속도를 조절하여 작물에 적절한 양의 농약을 분사한다. 정확하고 균일한 살포로 작물 병해충 방제와 노동력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고창군은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과정 운영' 하면서 농업드론자격 취득자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25명을 선발해 자격 취득교육을 추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창군에선 33농가가 드론자격을 취득했다. 앞으로도 여러 농업인이 드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마을단위 드론방제단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매년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가 예산 확보 적극 대응"

이학수 정읍시장, 영상 간부회의서 "2자녀 이상 가구 혜택 제공"

이학수 시장은 8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갖고 "4월 말까지 2025년도 국가 예산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연초 수립한 사업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에 막힘이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시장은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관련 조례 변경을 검토하라"면서 "이에 따른 부서별 혜택 관련 사항 또한 검토해 2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 제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시

11일부터 실시

부안군이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안정을 위하여 오는 4월 11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부안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전북은행이 협약을 맺고,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소재하고 유지 중인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과 3년간 대출이자 최대 3%에 해당하는 이차보

증을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18~39세)의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의 대출과 3년간 대출이자의 최대 4%의 이차보증을 지원한다.

2024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이달 1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안지점(☎063-583-7670)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기침체로 경영안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의 기회가 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을 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예산에 1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5대(일반 72, 우선 9, 배달 14)를 보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총 75대(일반 54, 우선 7, 배달 14)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이륜차종별 1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안군에 거주한 주민 및 법인·단체이며, 전기이륜차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시대에 따라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이 예상되며, 내연이륜차 운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공해 저감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